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③

제품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 전에 제품 출시 또는 팜플렛을 통한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면 추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 이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말자.

사례1 일본 마루나 vs 나성준

일본의 마루나사(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이후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마루나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의 카탈로그 및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패소하였다.

신제품을 개발한 후 본국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제품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쟁업체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제품출시 또는 제품 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례2 (주)은성디벨롭먼트의 경우

(주)은성디벨롭먼트는 97년에 속눈썹 성형구 '아이컬'을 개발, 해외 특허출원(중국 97년 6월 출원, 98년 7월 공개)을 한 후 인기에 수출을 해 오던 중, 중국 현지기업이 '아이컬'과 똑같은 모조품을 제조 및 유통,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

나 수출 전에 중국 및 제3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를 기초로 현지에서 침해업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소송제기 및 세관의 통관 보류 요청 등 적절한 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제품 개발과 동시에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이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출원을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였 다.

Tip

'해외 출원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원에 따른 비용으로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출원보조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 후 우수기술에 한하여 연간 1인당 건당 2백만원, 총 3건(6백만원)까지 해외 출원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45-2851)

2004년 지원예정액 : 총 5억원

'제15회 세계 우주 소년단 대회' 16개국 청소년과 미래 노벨상 경쟁



◀ '제15회 세계 우주소년단 대회'에 참석한 우주소년단원들이 개막 첫날 모형로켓을 발사하는 모습.

과학 꿈나무들의 올림픽인 '제15회 세계우주소년단대회'가 지난 8월 5일부터 나흘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한국우주정보소년단(총재 이상희)이 주최하여 열린 이번 대회는 전세계 16개국에서 4천여명의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의 노벨상 경쟁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과학으로 놀자'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로봇 컨테스트, 모형로켓 발사대회, 사이언스 쇼 등 과학경연 행사와 참가국별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회 공식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대회를 찾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체험과 문화행사도 마련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유전공학자 황우석 교수는 공식 홍보대사를 맡아 대회 셋째날 청소년을 위한 과학강연을 가졌다. 또 우주항

공교실, 과학 마술쇼, 50여개의 과학 활동 체험부스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가한 청소년들과 참관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참가국을 대표하는 각국 청소년들은 로봇 콘테스트(지능로봇, 라인 트레이서, 배틀로봇 등 3개 부문), 모형로켓 발사대회 등을 통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과학적으로 되짚어보는 전통과학 체험 한마당 행사도 마련되었는데 이 행사는 한국 전통염색 탐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 의상염색 기법을 연구하고 전통염색과 화학염색의 차이 및 전통염색의 특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의 원리를 이용한 고인쇄 제작방법을 실습하고, 조선시대 장영실 선생이 발명한 물시계 '자격루'를 만들어 시연해 보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2004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안내

국내 최고의 발명 전시회인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과 세계 발명인들의 발명품 축제인 '서울국제발명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개인 발명가 및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최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유통증진 및 사업화 촉진
- 범국민적 발명의식 제고 및 발명인의 사기진작
- 세계적인 국제전시회 개최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행사내용

- 전시기간 : 2004. 12. 10(금)~12. 14(화) COEX 태평양홀 1·2·3·4실(1층)
- 개관식 : 2004. 12. 10(금) 14:00 COEX 태평양홀(1층)

■ 시상식

-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 2004. 12. 10(금) 14:30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4층)
- 서울국제발명전 : 2004. 12. 13(월) 18:30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4층)

■ 주최 및 주관

- 주최 : 특허청 / •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 전시관 구성

- 국내관 : 특허기술대전관, 학생발명품관 등
- 국제관 : 외국발명관, 한민족관, 해외전 수상품관 등
- 유통관 : 발명특허품 유통관, 100대 우수 특허제품 전시관 등
- 지원관 : IP 아카데미관, e-마켓플레이스관, 기술이전관, 정보지원관 등

■ 출품신청

- 신청기간 : 2004. 9. 9(목)~2004. 10. 8(금)
- 신청자격 : 개인 또는 기업체의 특허·실용신안·의장으로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발명·고안품
- ※ 신청품 중 심사를 통해 전시대상 및 수상품 확정
- ※ 동일 발명품을 발명자와 출원자·등록권자가 각각 신청했을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시상

- 신청서 :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T. 02-3459-2793~6)

■ 시상계획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특별상(WIPO사무총장상) 1, 금상(산업자원부 장관상) 14, 은상(특허청장상) 28, 동상(발명진흥회장상 등) 80점, 총 126점

서울국제발명전

대상(그랑프리) 1, 우수상(SIIF상) 10, 금·은·동·특별상 230점, 총 241점(예정)

2004. 9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